

○ 참고자료 안내

❖ 참고자료(총 4종)

- 플라톤/강철웅 옮김, 『향연』, 이제이북스 2010
- 괴테/임흥배 옮김, 『젊은 베르터의 고뇌』, 창비 2012
- 에리히 프롬/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 데이미언 셔젤 감독, 영화 『라라랜드 La La Land』, 2016

- * 참고자료를 다 읽고 입론문을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 참고자료(총 4종)는 반드시 다 읽을 필요는 없으나, 입론문 작성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책 외에도 다른 자료나 사례를 다양하게 가져와 입론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예선과 본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본선 토론 진행 방식(총 44분, 숙의시간 포함)

순서	주장 1팀		순서	주장 2팀		숙의시간: 팀당 1회(2분) 사용
1	(갑) 입론	[4분]	2	(갑) 입론	[4분]	
3	각 팀 (갑/병) 상호질의응답 [6분]					
4	(을) 반론	[4분]	5	(을) 반론	[4분]	
6	자유토론 [12분]					
7	(을) 최종 발언	[3분]	8	(을) 최종 발언	[3분]	

- ① 주장 1팀 갑은 논제에 합당한 논점을 제시하고 논거를 든다.
- ② 주장 2팀 갑은 논제에 합당한 논점을 제시하고 논거를 든다.
- ③ 양 팀의 갑은 입론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 질문하고 답변한다.
- ④ 주장 1팀 을은 **입론과 상호질문답변에서 논의한** 내용에 근거해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한다.
- ⑤ 주장 2팀 을은 **입론과 상호질문답변에서 논의한** 내용에 근거해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한다.
- ⑥ 양 팀 갑과 을 모두 자유롭게 토론한다.
- ⑦ 주장 1팀 을은 전체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발언한다.
- ⑧ 주장 2팀 을은 전체내용을 정리하여 최종 발언한다.

○ 용어 설명

주장

대회 주제에 대해 각 팀은 논제에 해당하는 주장문(입장문)을 만든다. 찬반의 대립적 주장이 아니라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에 대해 각 팀의 관점과 입장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입론

각 팀의 (갑) 팀원이 각 팀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입론을 펼치는 과정에서 각 팀에서 준비한 세부 논점이 제시된다.

상호질의 응답

각 팀의 (갑) 팀원이 상대측의 입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는 단계. 상대측 입론에서 제시한 근거의 사실성을 확인하거나, 논증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쌍방향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단, 질문자 측에서는 반드시 상대측 입론에서 제기한 논점에 한해서만 확인하는 질문을 해야 하며, 질문자 측에서 새로운 논점을 제기할 수 없다.

반론

각 팀의 (을) 팀원이 각 팀의 입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앞선 입론 단계에서 표명된 팀의 입장에 대하여 보완하는 단계이다. 앞선 상호질 의응답 과정에서 자신의 팀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반론을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입론에서 제시한 논점에 더하여 새로운 논점을 추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다.

자유 토론

입론에서의 논점, 반론에서 새로 제기된 논점을 합하여 이루어진다. 각 팀의 (갑), (을), 즉 모든 팀원들이 참여하는 쌍방향 토론.

최종 발언

입론, 상호질의응답, 반론, 자유토론 단계에서 드러난 각 팀의 입장을 통합하여 발언하는 단계. 발언시간의 공정성을 위하여 각 팀의 (을)이 발언한다.

발언 시간

각 토론팀에서 선수 한 사람의 발언 시간은 2분을 넘을 수 없다.



참고도서 활용 방식

참고자료를 읽고[보고] 참고하여 자기 입장의 논의를 더 풍부하게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책 이외에 다른 자료나 사례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7회 SNU 토론한마당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

접수 | 2021. 8. 2 ~ 9. 30

본선 | 2021. 11. 17 (수) 오전 10:00 ~ 오후 5:00

참가대상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예선결과발표 2021년 10월 11일

접수 <http://liberaledu.snu.ac.kr/node/114>

토론주제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

시상 대상(1팀) 200만원, 금상(1팀) 100만원,
은상(2팀) 각 50만원, 동상(4팀) 각 30만원,
장려상(8팀) 각 20만원

참고자료 • 플라톤/강철웅 옮김, 『향연』, 이제이북스 2010
• 괴테/임흥배 옮김, 『젊은 베르터의 고뇌』, 창비 2012
• 에리히 프롬/황문수 옮김, 『사랑의 기술』, 문예출판사 2006
• 데이미언 셔젤 감독, 영화 『라라랜드 La La Land』, 2016

문의 Tel: 02-880-1415 | 기초교육원 카카오톡 채널 + (오른쪽 QR코드 스캔)



○ 대회 취지

토론 주제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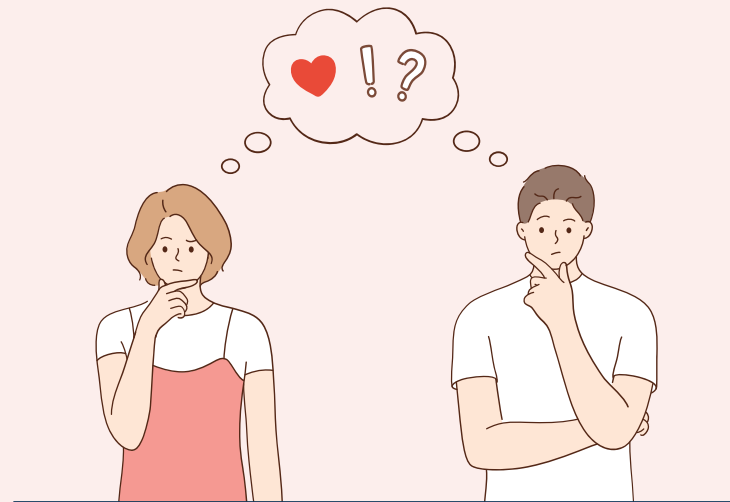
오늘날 20대 취업률은 19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청년들은 어려운 취업 시장을 뚫기 위해 대학 시절부터 학점 관리, 자격증 취득, 인턴 취업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 더욱이 정보화, 다원화, 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오늘날 사회는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학습해야 할 내용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구성원 간의 경쟁 또한 극심하다.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도 직장 내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휴식 시간조차 제대로 갖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형국에 사랑이라니?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해야 하는 사랑은 또 다른 노동이거나 사치가 아닐까? 이처럼 팍팍한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현재 연애 중인 20대의 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랑이 좋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한다면 당장 비현실적이라거나 낭만적이라는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과 대중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능처럼 누구나 이해하고 경험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체험한다. 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 드라마들이 가슴 설레는 첫사랑, 연인 간의 운명적 사랑, 사후에도 이어지는 불멸의 사랑 등을 고전적인 주제로 삼고 있어 간접적으로라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기독교나 불교 등의 많은 종교들에서 사랑을 교리나 계율로 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랑은 연인이나 가족, 친구 등의 가까운 인간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8세기 말 프랑스혁명을 통해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로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우애(fraternity)의 가치가 대두된 바 있으며, 세계시민주의에서는 모든 인간을 국경을 넘어서서 동일한 세계의 동일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 사랑하는 인류애(humanity)를 강조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는 사랑이 좋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이 좋은 삶에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관점도 존재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이미 20세기 초부터 낭만적 사랑(romantic love)의 개념에 전제된 남성중심성에 대한 공격이 시작되었고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친밀관계가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기 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혼자 사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1인 가구의 숫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혼밥, 혼술 등 혼자 하는 문화를 지칭하는 용어가 익숙해진지 오래다. 이에 때로는 에너지나 감정의 소모가 덜한 사랑의 대상을 찾기도 하는데, 학문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아실현을 성취하거나 반려동물 또는 식물을 기르거나 정서적인 유대를 도모하는 행위 등이 그것이다. 늘 변하는 존재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이 아닌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이지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삶의 실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인간은 아무렇게나 편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삶,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 좋은 삶이 무엇인지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오늘날 우리는 1인 가구 10명 중 7명이 혼자 사는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뉴스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편화된 코로나 팬데믹 시대 많은 이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우울감을 호소한다는 뉴스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상에서 고독의 공간이 넓어질수록 삶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워진다는 목소리들과 함께, 사랑에 대한 열망과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되는 현상을 목도하기도 한다. 과연 사랑은 좋은 삶에 필수적인가? 우리 삶에서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좋은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가 하는 것이다.



○ 대회 일정

예선접수기간: 2021년 8월 2일 ~ 9월 30일

예선결과발표: 2021년 10월 11일

본선대회: 2021년 11월 17일 (수) 오전 10:00 ~ 오후 5:00

○ 예선 접수 안내

❖ **본선 참가팀:** 예선 심사를 거쳐 총 16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합니다.

❖ **팀 구성:** 팀은 최소 2명~최대 5명으로 구성 가능합니다. 각 팀은 매 시험마다 등록된 팀원 중에서 2명을 선발하여 자유롭게 선수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론 시험이 시작된 후 중간 선수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선 접수 방법:** 접수기간 내에 예선 신청서와 예선 입론문을 모두 제출해야만 지원 등록이 완료됩니다. 편의를 위해 예선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난 후, 예선 입론문을 나중에 등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론문 작성 방식:** 토론대회 취지문을 상세히 읽고, 대회 주제에 대한 팀의 입장을 먼저 개진합니다. 참고자료 중 최소한 한 종을 택하여 자신의 입장에 따라 논거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참고도서 자료에 한정해서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 토론 팀의 고유한 의견, 관점 등을 뒷받침하는 직접 경험이나 간접 사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